

# 운명 가른 30cm 퍼트

## 김인경 18홀 우승문턱서 실패 연장으로 유선영 '호수의 여인' 첫 메이저 킴 등극

###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

유선영(26·정관장)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호수의 여인'으로 재탄생했다.

유선영은 한국 선수로는 2004년 박지은(33)에 이어 이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함으로써 한국 선수 시즌 첫 우승의 영광을 누리면서 LPGA 통산 102승째를 쌓았다.

개인적으로는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하는 감격도 누렸다.

또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들어 열린 5차례 대회에서 청아니 등의 벽에 막혀 번번이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한꺼번에 털어냈다.

유선영은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 미션힐스 골프장(파72·6702야드)에서 끝난 대회 4라운드에서 전날까지 선두였던 청아니(23·대만)와 카린 쇼던(29·스웨덴)을 극적으로 따돌리고 우승권에 입을 맞췄다.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4위 그룹에서 서희

경(26·하이트진로), 김인경(25·하나금융그룹) 등과 함께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유선영은 침착한 플레이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했다.

한국 선수 간의 우승경쟁으로 펼쳐진 마지막 4라운드는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초반에는 서희경이 앞서 나갔다.

2번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은 서희경은 2~3홀씩 건너뛰며 12번홀까지 5개의 버디를 줄줄이 낚아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그러나 15번홀(파4)에서 티샷이 흔들려 보기를 범한 서희경은 18번홀까지 연속 4개 홀에서 보기를 쏟아내 최종 합계 7언더파로 처지면서 우승권에 밀려났다.

그러자 이번엔 김인경이 두각을 나타냈다. 김인경은 8번홀(파3)에서 버디를 낚은 뒤 후반 14(파3), 16(파4), 17번(파3)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4타를 줄이고 10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서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김인경에게 마지막 18번홀(파5)이 통탄의 홀로 남게 됐다.

김인경은 이 홀에서 파 세이브만 하면 수



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거리 버디 퍼트에 실패한 뒤 홀 30cm에 바로 붙어 있던 볼을 푹 친 것이 홀 주위를 쓸고 나오는 바람에 보기를 범해 이날 3타를 줄여 9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끝낸 유선영과 동타가 되면서 연장전에 끌려갔다.

18번홀에서 열린 연장전의 승부는 심하게 갈렸다.

김인경이 3타 만에 올린 볼이 그린 가장자리에 걸렸지만 유선영의 볼은 홀 4m 부근에 안착했다. 김인경은 결국 버디 버트에 실패했고, 유선영은 침착하게 버디를 낚아 대접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유선영은 "이번 시즌 목표가 2승이었다"면서 "이제 1승을 거뒀으니 두 번째 우승을 향해 뛰겠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200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회한 유선영은 2002년 골프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04년에는 주니어 골프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등 실력을 뽐냈다.

2009년 LPGA 투어 P&G 뷰티 NW야간 쇼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오른 유선영은 2010년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맞췄다.

지난주 열린 KIA 클래식에선 청아니에 6타 뒤진 2위의 성적을 냈다.

유선영은 이번 대회 우승상금으로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받았다.

이날 17번홀까지 8언더파를 기록한 청아니는 마지막 홀에서 대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청아니는 이 홀에서 7m 남짓 띄는 버디 퍼트에 성공하면 연장전에 합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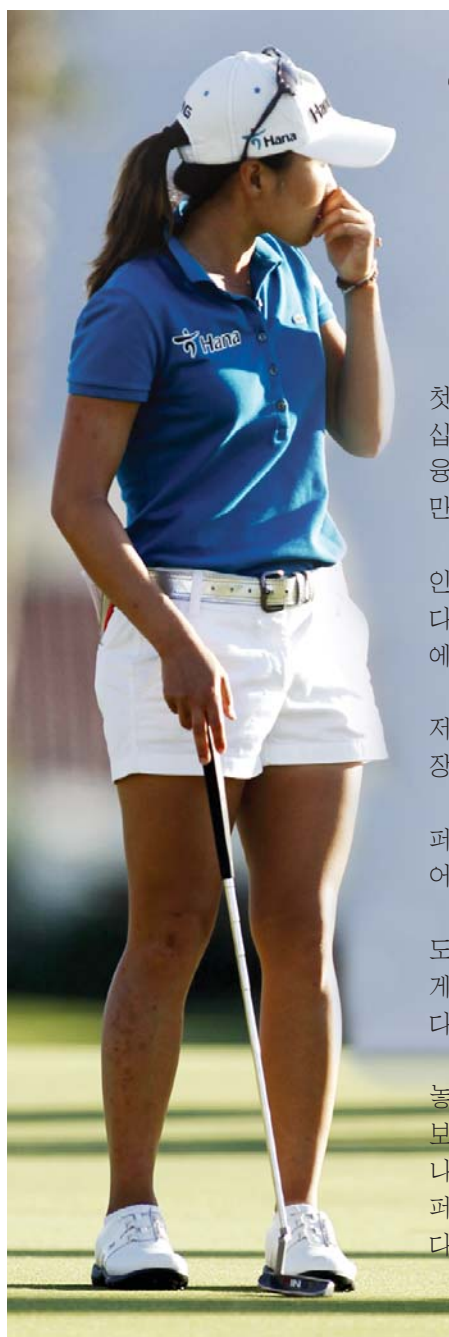
그러나 살짝 밀어진 퍼트는 아슬하게도 홀을 스치고 지나갔고 청아니는 그대로 그린 위에 주저앉았다.

이번 대회에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도전했던 '만인니' 박세리(35·KDB산은금융그룹)는 3라운드에서 홀인왕을 기록한 최나연(25·SK텔레콤)과 함께 최종합계 6언더파로 공동 8위에 오르는 양호한 성적을 냈다.

한국 선수 중 9번째 '메이저 킴'으로 등극한 유선영은 포피 폰드에 뛰어들어 우승을 만끽했다.



'호수의 여왕' 세리모니 유선영이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LPGA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캐디 아담 우드워드와 18번홀 옆 호수에 뛰어드는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고싶어라”  
연장패배 준우승 김인경  
“아쉽지만 선영언니 축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아쉽게 준우승한 김인경(25·하나금융그룹)은 2일(한국시간) “어쨌든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인경은 이날 경기를 마친 뒤 J골프와의 인터뷰에서 “다들 마지막에 찬스가 있었다. 다 잡힌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장전에서 패한 소감을 그 같이 밝혔다.

김인경은 마지막 한 홀을 남긴 상황에서 먼저 정규 라운드를 마친 2위 유선영(26·정관장)에 1타 앞선 10언더파를 기록했다.

그러나 18번홀(파5)에서 30cm 거리의 퍼트에 실패하는 바람에 유선영과 동타가 되어 연장전에 들어갔다. 유선영은 4개 범하면 서 1타를 더 잃어 최종합계 6언더파의 성적으로 공동 29위에 머물렀다.

유선영은 “(서)희경이 언니도 아쉽고, 나도 아쉬운 경기이지만 어쨌든 선영이 언니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경은 18번홀 상황에 대해 “그 퍼팅을 놓친 건 잘 모르겠다. 마지막 그 퍼팅은 바로 보고 쳤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돌아 나왔다”며 “마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짧은 퍼트였는데 마크를 했다. 아쉽다”고 덧붙였다.

### 메이헌 PGA 셀 휴스턴 오픈 우승컵

올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우승한 헨터 메이헌(30·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셀 휴스턴 오픈(총상금 600만 달러) 우승컵을 가져갔다.

메이헌은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험블 레드스톤 골프장(파72)에서 끝난 대회 4라운드에서 1타를 더 줄여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 4위로 뛴 메이헌은 지난달 열린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대회 결승에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꺾어 올 시즌 들어 2승째를 올린 첫 PGA 투어 선수가 됐다.

2위에는 선두에 1타 뒤진 15언더파를 찍어낸 카를 페테르손(스웨덴)이 올랐고, 3위는 14언더파를 기록한 루이스 우어스티즌(남아공)이 차지했다.

메이헌은 3라운드까지 선두를 지킨 우어

스티즌에 2타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어스티즌이 전반 5번(파4), 8번(파5)홀에서 연거푸 더블 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메이헌에게 우승컵이 돌아갔다.

양용은(40·KB금융그룹)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잡고 보기를 4개 범하면서 1타를 더 잃어 최종합계 6언더파의 성적으로 공동 29위에 머물렀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2·켈러웨이)는 4라운드에서 2타를 까먹는 바람에 최종합계 5언더파를 기록, 공동 36위로 대회를 마쳤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